

# 野 3+1, 연동형캡 · 석패율제 도입 '합의' ...공은 민주당에

### 연동형 캡 30석 수용 · 이중등록제 거부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1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 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0)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이 18일 선거법 협의를 마친 후 '선거제 최종 합의'의 공을 민주당에 넘겼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 정의당 심상정 ·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

하기로 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것"이라며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바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말이 안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을 5%로 높이는 데 대해 "원래의 합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이 (3%)로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야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나가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데 그 이후에나 원내대표급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야당은 17일 밤 '4+1' 회동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30석을 캡으로 연동형 배분을 하는 안을 수용한 반면 석패율제는 고수하기로 입장을 모아 민주당의 최종 결단을 촉구했다. 선거제 최종 합의의 공을 민주당에 넘긴 셈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 3+1 합의안 도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대가 엄청 크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는다면 4+1 협상이 다시 난항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야당이 한목소리를 낸 합의안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손 대표는 "우리가 일단 합의해서 민주당이 이를 받으라는 얘기고 취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제1야당 대표가 국회 폭력집회 주도 '개탄'"

"황교안 이끄는 한국당, 공당이라 평가 어려워"  
"황 대표, 국회 유린사태에 무거운 책임 져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불법적 폭력 행사하는 사위대를 이끌고 언제까지 원외 중심 정당을 이끌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주최한 집회에서 보수단체 등이 국회에서 시위를 벌여 국회 출입이 마비되는 등 국회 일대가 대혼란에 빠진 것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국회가 사상 초유의 폭력집회로 얼룩졌다. 이번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그것도 제1야당의 주도과 지원으로 이뤄졌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분명히 불법 · 폭력집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불법 상황을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이

이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는 말이냐"며 "이런 불행한 폭력 무법 사태를 주도하고 방조한 한국당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의 이번 집회를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하면서 경찰에 단호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부대의 정체성이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다"며 "지난 며칠 황 대표는 정치를 완전히 버렸다. 의회민주주의를 버렸고, 보수를 자처해야 할 한국당의 정체성마저 완전히 버렸다"고 고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당, 공당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제1야당 대표가 태극기부대의 극우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오기의 정치, 증오의 정치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 정치의 중대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황 대표는 지난 3월 민감룡 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법치를 세우달라 주문하면서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이란 도 사소한 집시법 위반을 하던 현정체로 한다고 했다"면서 "검사,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법 해석을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의 태도 최소수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는 열광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이성적 국민의 지지는 절대 받지 못할 것"이라며 "황 대표는 반성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 황 대표는 야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 유린 현장에서 황 대표는 국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군중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제1야당의 대표가 맞다. 황 대표는 지난 월요일 국회 유린사태에 대해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이낙연, 종로 출마...차기 대선주자 1위 어려울 것"

### "신임 총리와 정세균과 경쟁구도 형성" 분석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허허벌판에서 뛰어다녀야 하고 자기 추종세력이 없는 등 단기필마"라며 "또 다른 시한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

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쪽에 소위 움직임은 핵심세력들은 어떤 경우에도 종로를 뺏길 수 없으니 이 총리가 (종로에)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래의 자기 선거구인 중구성동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왔다. 민주당에서 상당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가 신임 국무

총리에 지명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와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를 놓고 경쟁구도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기 사단이 있는 정 후보자가 총리에 인준돼 잘 하면 사단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참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화합, 경제에 역점을 두고 (총리를) 해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서열, 의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 의원이 (총리를)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자'고 얘기를 했으리라고 본다"고 짐작했다.

## 김재원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영화 속 '시다바리' 생각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 "오래전에 본 친구"라는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났다. '시다바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견 경악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

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의장은 행정부 시너처럼 국회를 운영하더니 바로 직전 의장(정 전 의장)은 아예 대통령 밑에 들어가 일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분립 원칙, 공화정 원칙, 국회의 공정한 운영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 전 의장의 임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민주당의 원리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시다바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